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6돐에 즈음하여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각하

나는 2014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6돐에 즈음하여 당신께와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케니아와 조선사이의 관계가 우리 두 나라 인민사이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발전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케니아공화국 대통령 우후루 케니아라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 각하

각하 나는 민족적명절에 즈음하여 당신께와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체 인민에게 진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공동의 노력으로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의 내용을 풍부히 하고 보다 높은 단계에서 끌어올릴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시길과 친선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복리와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따쥬가스판공화국 대통령 에모말리 라흐몬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각하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6돐에 즈음하여 당신께와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최대의 축원과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지난 기간 우리 두 나라가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여온데 대하여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인도네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에서 존재하는 친선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되리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합니다.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 박사 쉘로 밤방 유도요노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6돐에 즈음하여 당신께와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친선적인 조선인민에게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이며 친선적인 협조관계가 성과적으로 발전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앞으로 두 나라의 관계를 정치분야뿐만아니라 경제분야에 심화발전시키며 지역 및 국제평화와 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존경하는 각하 당신과 협조하게 될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뿐아니라 지역의 안정위업에도 부합된다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각하 당신께서 건강하시길과 아울러 조선인민의 조국건설위업에서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몽골 대통령 짜히아긴 엘베그도르쥬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각하

각하 나는 2014년 9월 9일 귀국의 창건기념일에 즈음하여 당신께 열렬한 축하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또한 이 기회에 귀국인민에게 번영이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각각게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가메룬공화국 대통령 벨 비 야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절을 맞이하는 행복한 기회에 각각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면서 각각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시길과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네팔 대통령 박사 람 바란 야다브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기념일에 즈음하여 메히고 인민의 이름으로 각각게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관계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는바입니다.

각각게 충심으로 되는 인사와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경의를 드립니다. 메히고합중국 대통령 엔리게 빼냐 니에도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 동지

존경하는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에 즈음하여 당신께 푸르크메니스탄 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가장 따뜻한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이 기쁜 기회에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축원하며 아울러 조선인민에게 평화와 진보, 번영이 있을것을 바랍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두르크메니스탄 대통령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함메도브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령도자 이신 김정은 동지 각하

저는 귀국 국경절 66돐에 즈음하여 각각께와 그리고 각각를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짐바브웨공화국 정부와 인민, 저자신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각하 짐바브웨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훌륭한 관계를 귀중히 여기고있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각각께서 건강하시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평화와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짐바브웨공화국 대통령대리 죠이스 티우라이 로파 무주루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 동지

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6돐에 즈음하여 정의의 로씨야당과 저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와 그리고 전체 조선인민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김일성동지께서 1948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신것은 현대세계력사에서 중요한 사변으로 되였습니다. 이 사변은 조선반도에서 새로운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시초를 열어놓았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시길과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공민들이 커다란 성과를 거둘것을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두 나라와 그리고 정의의 로씨야당과 조선로동당사이의 협조가 결실되게 강화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의를 드립니다.

정의의 로씨야당 위원장 에스. 엠. 미로노브



광범한 대중을 새 조국건설에 불려일으킨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깊이 새기고있다. -말씀혁명사적지에서- 본사기자 신 총혁 역음

명철한 판단, 비범한 예지

충실성의 귀감이기때문입니다. 주제 28(1939)년 8월 사령부를 해치려는 적들의 음흉한 기도를 꿰뚫어보시고 제때에 짓부셔버리신 사실은 김정숙동지께서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신 하찮은 사실들중의 하나이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국내당공작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시고 귀로에 오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언제나 혁명적경각심으로 사령부의 안전을 스스로 맡아서하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때에도 적들의 책동을 미리 예견하시고 주변의 경계초소들에 다는 정황이 없는가를 예리하게 살피셨습니다.

그 과정에 김정숙동지께서는 한 초소에서 잠나루버섯을 따기 위해 산에 오르는 두 《동민》을 단속하였다든것과 의심스러운 것이 별로 없기에 부대가 철수한 다음 돌려보내려 한다는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저 스쳐보낼수 있는 사실이였습니다.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 이 사실은 결코 사소한것이 아니였습니다. 김정숙동지의 뇌리에 있는 참나무버섯 따려고 왔다는 사람들이 무엇때문에 소나무단 우거진 이 수림속에서 어슬렁거리는가, 또 참나무버섯은 비가 온 뒤라야 돋는것인데 비가 온적이 있는가, 이런 초보적인 상식도 모르고 버섯을 따려고 왔다는 없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치였습니다. 사령부의 안전과 관련된다는 문제라고 생각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초소를 달려가시었다. 그러시고는 두 《동민》을 심문하시었다. 김정숙동지의 예리한 통찰력과 정확한 판단력에 놀들의 정체는 순식간에 폭로되었습니다. 심문에 의하면 그들은 고층계형사들이였습니다. 이 놀들의 신호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별》에 출동하게 되였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 사태를 곧 위대한 수령님께 보고드리시였습니다. 그자들은 정체가 발각되자 새 파광계 질러 대원들의 무릎에 매달리며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부절하였다. 인민의 이름으로 두 형사들

선군조선의 만년재부-백두산녀장군의 혁명유산

선군의 충대를 앞세우고 강성번영하는 백두산대국. 태양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만방에 떨치며 세기의 꿈과 리상을 실현해나가는 우리 조국의 빛나는 모습속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이 빛나고있어 인민의 마음 격정에 젖는 9월이다. 김정숙동지의 서거 65돐이 다가올수록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남긴 유산을 가슴깊이 새기고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생애의 전기간 자신을 위해서는 더더욱 천 환초박, 옷 한벌도 여유를 두지 않으시였다. 조국에 개신하신 후에도 간혹 옷감이 생기면 그것을 대으로 찾아오는 혁명가수녀들과 남조선인사의 딸, 인민들에게 주시고 자신께서는 무더운 여름날에도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탁사산천으로 옷을 해입으시였다. 겨울에는 겨울대로 온전한 외투도 없지 아니시였다. 조국에 나오실 때 입으셨던 솜을 둔 반의투는 항일대 전시기의 남편에게 주시고 다음해 겨울에야 낮은 보피색군복의투를 들이셨을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생애의 전기간 자신을 위해서는 더더욱 천 환초박, 옷 한벌도 여유를 두지 않으시였다. 조국에 개신하신 후에도 간혹 옷감이 생기면 그것을 대으로 찾아오는 혁명가수녀들과 남조선인사의 딸, 인민들에게 주시고 자신께서는 무더운 여름날에도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탁사산천으로 옷을 해입으시였다. 겨울에는 겨울대로 온전한 외투도 없지 아니시였다. 조국에 나오실 때 입으셨던 솜을 둔 반의투는 항일대 전시기의 남편에게 주시고 다음해 겨울에야 낮은 보피색군복의투를 들이셨을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생애의 전기간 자신을 위해서는 더더욱 천 환초박, 옷 한벌도 여유를 두지 않으시였다. 조국에 개신하신 후에도 간혹 옷감이 생기면 그것을 대으로 찾아오는 혁명가수녀들과 남조선인사의 딸, 인민들에게 주시고 자신께서는 무더운 여름날에도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탁사산천으로 옷을 해입으시였다. 겨울에는 겨울대로 온전한 외투도 없지 아니시였다. 조국에 나오실 때 입으셨던 솜을 둔 반의투는 항일대 전시기의 남편에게 주시고 다음해 겨울에야 낮은 보피색군복의투를 들이셨을것이다.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신 하찮은 사실들중의 하나이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국내당공작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시고 귀로에 오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언제나 혁명적경각심으로 사령부의 안전을 스스로 맡아서하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때에도 적들의 책동을 미리 예견하시고 주변의 경계초소들에 다는 정황이 없는가를 예리하게 살피셨습니다. 그 과정에 김정숙동지께서는 한 초소에서 잠나루버섯을 따기 위해 산에 오르는 두 《동민》을 단속하였다든것과 의심스러운 것이 별로 없기에 부대가 철수한 다음 돌려보내려 한다는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저 스쳐보낼수 있는 사실이였습니다.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 이 사실은 결코 사소한것이 아니였습니다. 김정숙동지의 뇌리에 있는 참나무버섯 따려고 왔다는 사람들이 무엇때문에 소나무단 우거진 이 수림속에서 어슬렁거리는가, 또 참나무버섯은 비가 온 뒤라야 돋는것인데 비가 온적이 있는가, 이런 초보적인 상식도 모르고 버섯을 따려고 왔다는 없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치였습니다. 사령부의 안전과 관련된다는 문제라고 생각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초소를 달려가시었다. 그러시고는 두 《동민》을 심문하시었다. 김정숙동지의 예리한 통찰력과 정확한 판단력에 놀들의 정체는 순식간에 폭로되었습니다. 심문에 의하면 그들은 고층계형사들이였습니다. 이 놀들의 신호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별》에 출동하게 되였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 사태를 곧 위대한 수령님께 보고드리시였습니다. 그자들은 정체가 발각되자 새 파광계 질러 대원들의 무릎에 매달리며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부절하였다. 인민의 이름으로 두 형사들

해방후에도 항일의 고난처럼 언제나 권총을 소중히 지니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건당, 건군, 건국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으며 언제나 인민들과 고락을 같이하시고 인민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피주셨다.

해방후에도 항일의 고난처럼 언제나 권총을 소중히 지니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건당, 건군, 건국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으며 언제나 인민들과 고락을 같이하시고 인민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피주셨다. 김정숙동지께서 남긴 혁명의 유산을 고귀한 유산으로 깊이 간직 하시였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이 유산의 선군사상을 받들어 혁명적행동을 하시였으며 인민을 위해 헌신하시였으며 인민을 위해 헌신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남긴 혁명의 유산을 고귀한 유산으로 깊이 간직 하시였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이 유산의 선군사상을 받들어 혁명적행동을 하시였으며 인민을 위해 헌신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남긴 혁명의 유산을 고귀한 유산으로 깊이 간직 하시였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이 유산의 선군사상을 받들어 혁명적행동을 하시였으며 인민을 위해 헌신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남긴 혁명의 유산을 고귀한 유산으로 깊이 간직 하시였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이 유산의 선군사상을 받들어 혁명적행동을 하시였으며 인민을 위해 헌신하시였다.

성강의 후방사업은 무엇을 깨우쳐주는가

성진제강련합기업소 당책임비서 전룡국동무의 사업경험

성강!
이것은 단순히 한계 단위의 이름만이 아니다. 화려한 조국력과 더불어 영웅적인 위훈과 인간사랑의 전설을 전하는 로동당시대의 값높은 부름으로 되었다.

백두산철제위인들의 불멸의 영도업적으로 빛나는 이 력사의 땅에서 어제는 성강의 봉화가 타올라 주체철란생이라는 민족사적대장사를 안아왔다면 오늘은 후방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루어져 우리 당의 인민중시사상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고 있다.

성강에 펼쳐진 후방사업의 눈부신 현실은 원천로폭파하는 인간사랑의 전설을 꽃피우신 위대한 수령님과 고난의 시기 후방사업의 봉화를 지켜주신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인민중시사상을 충직하게 받아들여 온 성강의 당사들의 총화라고도 말할 수 있다.

성강련 1호, 2호, 3호, 4호발전소를 건설하여 중업원산립점들과 문화후생시설들의 전기화를 실현, 흥평지구에 품착되는 집승방목기지를 꾸려 우유와 뼈다, 졸인것을 비롯한 젓가공제품들을 생산, 수백(생산능력의 돼지고기분산사육체계수립, 수백(생산능력의 오리목장, 가족휴양소, 성장원, 로동자합숙, 문화회관, 료양소, 휴양소, 정양소, 풍가공기지, 내포가공기지, 비누생산기지 등을 건설...

성강이 클수록 만족을 모르고 끊임없이 전진하고 비약하는 성강의 후방사업은 인민을 위해 참담케 복부하여야 할 우리 일군들에게 무엇을 깨우쳐주고 있는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이민위천의 사상을 빛나게 구현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후방사업을 사회주의호전으로, 중요한 당적사업으로 틀어쥐고 방법론있게 조직적개념은 성진제강련합기업소 당책임비서 전룡국동무의 사업을 놓고 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기로 하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수령님식, 장군님식 인민관을 지니고 인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며 낡은 사고방식과 틀에서 벗어나 모든 사업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대중을 불러일으켜 대오의 진척력을 열어나가는 일군이 바로 오늘 우리 당이 요구하는 참된 일군입니다.》

후방사업에서 일대 비약을 가져오기 위한 전룡국동무의 투쟁에서 특징적인것은 높은 관점, 기수적인 역할, 끝장을 보는 완강성이다.

열심은 열사복무의 마음에 있다

후방사업에서 성과의 가장 근본적인 열쇠는 인민을 하늘로 보는 관점, 인민을 위한 열사복무의 마음이라는것을 전룡국책임비서는 실천으로 확충했다.

10여년전까지만 해도 후방사업에 대한 일군들의 관점은 오늘날 같지 않았다. 일부 일군들은 후방사업을 마치나 생산과 별개의 사업으로 여기며 중업원들의 사업조건, 생활조건보장문제를 생산 다음가는 부차적인 사업으로 보는 관점에 서 있었다.

그러다보니 후방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통이 크게 세운 목표들이 그림의 떡으로 되고 있었다.

전룡국동무는 일군들의 가슴속에 중업원들을 위한 열사복무의 마음을 심어주려는것을 후방사업의 대문을 여는 근본열의로 보았다.

그는 이 사업을 당위회화적인 사업으로 전환시켰다. 연합기업소의 각급 당조직에서는 후방사업에 대한 일군들의 관점을 바로잡아주기 위한 사상전의 뒤바람을 일으켰다. 모든 사업의 계기와 공경들이 우리 당의 인민중시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의 무대로 되었다.

어느해 12월 년간생산총화모임때였다. 계획을 넘쳐 수행한 일군들의 열골마다에는 웃음이 넘쳐흘렀지만 전룡국동무의 열골만은 밝지 못했다.

《물론 어려운 조건에서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것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우리 일군들은 기쁨을 어디에서 먼저 찾아야 합니까. 1강철직장에 가서 로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추운 합숙방보다 쇠물이 끓는 로양이 더 좋아 퇴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기로 방을 덥히게 되어있는 로동자합숙의 방들이 자주 정전되어 이런일이 벌어지고있다는것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우리가 어머니수일을 하고있어나 많은 말을 하고있습니까. 어머니는 자식의 성적증을 보기 전에 열골부터 먼저 봅니다. 생산수자보다 로동자들의 열골을 먼저 보는 일군이 됩시다. 그러자면 로동자들을 위한 열사복무의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이것은 책임비서인 자기 자신에게 내린 체적일기기도 하였다.

한해를 총화하는 그날의 모임에서 울린 책임비서의 목소리는 일군들의 가슴속에 어머니의 절절한 당부로 뜨겁게 새겨졌다. 이렇게 되어 다음해부터 발전소를 하나 더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 전개되게 되었다. 전룡국동무는 실천투쟁속에서 일군들이 후방사업에 대한 높은 관점을 품고히 하도록 걸음걸음을 이끌어 나갔다.

《후방토대를 꾸리는 사업은 보여주기사업이나 진행하고 전시회나 펼쳐놓고 참관이나 하는데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중업원모두가 실제 덕을 보게 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의 후방기지를 건설해도 전체가 덕을 볼수 있게 통이 크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오리목장을 수백(생산능력으로 확충되게 되었다.

기업소에 그치지 꾸려진 모든 후방기지들은 바로 중업원들을 위한 열사복무의 마음을 키워준 일군들의 혁명화의 교정들이었다.

비오는 날 자동차가 달릴 때 길가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에 한방울의 흙탕물이라도 튀기지 않도록 일군들과 운전사들에게 늘 강조를 한다는 사실이 오래 걸을 때마다 특별히 옷과 신발이 낡은 아이들을 볼 때면 이름과 집주소를 적었다가 안해를 시켜 도와주도록 한 사실들을 비웃어 언제나 중업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세심히 마음쓰는 책임비서의 실천적모범은 일군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곤 하였다.

이런 사실들을 다 들지던 끝이 없다.

그렇다. 성강의 후방사업성과의 결정적요인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민위천의 사상을 받들고 뼈를 깎아서라도 인민생활문제를 풀겠다는 각오밑에 신발창이 닳도록 뛰고 또 뛰려는 일군들의 열사복무의 마음에 있다.

뒤짐을 지지 말고 앞채를 메자

후방사업은 당조직의 몫이며 후방사업의 성격은 당책임일군이 결정한다. 성강의 후방사업은 당책임일군이 뒤짐을 지면 퇴보하고 앞채를 메면 전진한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 전룡국책임비서가 추어하는 교훈적인 이야기기 있다.

생산에 앞서 후방사업을 그토록 중시하신 어버이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자면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 기업소에 찾아오시여 몸소 몸음식가지수며 이불의 두터이와 옷수리문제, 일일공급정형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헤아려주시고 오리목장의 생산정형도 알아보시며 그리고 기뻐하시던 어버이장군님의 그날의 모습을 잊을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군님의 뜨거운 어버이사랑을 언제나 가슴속에 안고 살시다. 로동자들을 하늘처럼 여기시는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다시 한번 명심합시다. 로동자들을 위해 우리 일군들이 있고 당사업이 있다는것을 자각하고 기업소가 손해를 보더라도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마디마디 백두산철제위인들의 인민중시사상이 맥박치는 책임비서의 호소는 일군들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다. 이렇게 되어 발전소건설은 당결정으로 채택되었다.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책임비서는 늘 건설현장에서 살다싶이 하면서 일군들과 동격대원들을 이끌었다. 시련과 난관이 걸음걸음을 막아나섰지만 투철한 복무의 마음은 또 하나의 성강의 기적을 안아왔다. 10년이 걸려도 어떡하던 발전소건설을 짧은 기간에 완공한것이다.

이렇듯 발전소건설과정은 일군들의 복무관점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한 매우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이것은 하나의 실례에 불과하다. 일부 일군들속에서 오리목장확장문제를 놓고 의견들이 제기되었을 때에도 그랬다. 물론 그들의 말대로 당시의 오리고기생산능력이 다른 단위들보다 훨씬 앞섰지만은 사실이었으나 책임비서의 요구성은 추호도 흔들리지 않았다.

《후방토대를 꾸리는 사업은 보여주기사업이나 진행하고 전시회나 펼쳐놓고 참관이나 하는데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중업원모두가 실제 덕을 보게 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의 후방기지를 건설해도 전체가 덕을 볼수 있게 통이 크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오리목장은 수백(생산능력으로 확충되게 되었다.

기업소에 그치지 꾸려진 모든 후방기지들은 바로 중업원들을 위한 열사복무의 마음을 키워준 일군들의 혁명화의 교정들이었다.

비오는 날 자동차가 달릴 때 길가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에 한방울의 흙탕물이라도 튀기지 않도록 일군들과 운전사들에게 늘 강조를 한다는 사실이 오래 걸을 때마다 특별히 옷과 신발이 낡은 아이들을 볼 때면 이름과 집주소를 적었다가 안해를 시켜 도와주도록 한 사실들을 비웃어 언제나 중업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세심히 마음쓰는 책임비서의 실천적모범은 일군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곤 하였다.

이런 사실들을 다 들지던 끝이 없다.

그렇다. 성강의 후방사업성과의 결정적요인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민위천의 사상을 받들고 뼈를 깎아서라도 인민생활문제를 풀겠다는 각오밑에 신발창이 닳도록 뛰고 또 뛰려는 일군들의 열사복무의 마음에 있다.

이것이기에 우리는 전진하는 길에 앞채를 메고 뒤짐을 지지 말고 앞채를 메자

파괴나 주는 나누기식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후방기지건설장들에 나가서도 몇몇 일군들이 만나 후신나 하고 돌아오곤 하였다.

말하자면 후방사업을 자신의 몫으로 여기지 않고 뒤짐을 지고 쉬운 길을 걸었던 것이다.

그러나 후과는 치명적이었다. 기업소의 후방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뒤짐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던 그가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었는데 후방사업은 당조직의 몫이라는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때부터였다.

후방사업은 당조직의 몫! 전룡국동무는 이 귀중한 가르침을 위대한 장군님의 인간사랑의 명령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바위에 쏘아박듯 가슴이 새겨졌다. 《뒤짐을 지지 말고 앞채를 메자!》

이때부터 뒤짐이 없어졌다고 한다. 기업소의 후방사업을 떠메고 생생하게 나섰던 것이다.

전룡국책임비서는 일군들의 기수적역할 문제에서 두가지를 중시하였다. 하나는 책임비서자신이 실력전의 제일기수, 원신의 제일기수가 되는것이요 다른 하나는 모든 단위일군들과 후방부문 일군들을 기수로 준비시키는것이였다.

우선 그는 실력전의 제일기수가 되어 후방사업의 기수를 앞장에서 들고나가는것을 철칙으로 삼았다.

모르던 지도할수 없다는것이 그의 지론이다. 그는 주체철생산체계를 확립하는데서 공로가 있는 공학박사이다. 생산을 바로 지도하자면 공학박사가 되어야 하고 후방사업을 바로 지도하자면 건설박사, 축산박사, 농학박사가 되어야 한다는것이 그의 주장이다.

사실 련합기업소의 당사업을 하면서 건설공학, 축산학, 농학, 식료공학 등 후방사업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과학기술지식을 높은 수준에서 소유한다는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다.

하지만 그는 시간을 쪼개며 사색과 탐구의 강행군길을 걸었다. 그가 얼마나 책을 보았고 얼마나 많은 과학자, 기술자들을 찾았나 만났나 얼마나 많은 탐구의 밤을 지새웠는가를 사람들은 다는 모른다.

하기에 오늘 그를 두고 《축산박사》, 《농학박사》, 《건설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

높은 과학기술실력으로 후방토대를 설계하고 지휘하는 나날에 있었던 가지가지의 사실들은 기업소의 어느 후방기지에서도나 들을수 있다.

흥평지구의 품착되는집승방목기지에 가면 일군들과 함께 물자들과 기술도서를 어깨에 메고 찾아와 염소의 생리특성에 맞게 방목형식과 사양관리방법을 개선하여 중체율을 높이는 문제, 방목문제, 염소젖가공문제를 과학기술적으로 령거주어 사람들을 놀라게 한 사실을 들을수 있고 부업농장에 가면 지대적특성에 맞게 강방이 정보당수확고를 높일수 있는 종자선택으로부터 비배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농공정을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기로 이끌어주어 농사의 과학화수준을 높여줬다는 사실을 들을수 있다.

발전소들과 오리목장, 비누생산기지를 비롯한 모든 후방기지에는 책임비서의 높은 과학기술실력과 원신의 땀방울이 스며여있다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전룡국책임비서는 또한 후방사업에서 일

군들이 기수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데 큰 힘을 냈었다.

언제인가 전룡국동무가 한 당일군에게 담담한 단위로 후방사업이 잘 안되고있는 원인에 대하여 물은적이 있었다.

그 일군은 단위일군들의 책임성이 높지 못하데 있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후방사업과 관련한 과학기술문제를 물었을 때 그는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 대답을 책임비서가 하였다. 놀라움과 자책감을 감추지 못하는 그 일군에게 책임비서는 말하였다.

《후방사업에서의 기수는 우리 일군들이요. 그러자면 당일군자신부터가 높은 책임성을 지녀야 하며 해당한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해야 하오. 모르면 후방사업을 옮겨 지도할수 없소.》

그 일군이 받은 충격은 컸다. 그후 새로운 립장에서 내뱉은 그 일군의 자욱자욱은 좋은 성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책임비서는 일군들을 옮겨 선발배치하여

결승선을 출발선으로!

오늘 성강의 후방사업성과는 대단하다. 최근년간에 세운 방대한 목표들을 거의나 점령하였다. 말하자면 결승선에 도달한셈이다.

능력이 큰 발전소들을 건설하여 그 덕을 단단히 보고있으며 수백(생산능력의 오리목장을 건설하여 메달 고기를 정상공급하고 있다. 료양소, 정양소, 휴양소, 가족휴양소를 건설하여 로동자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있다. 풍가공기지, 내포가공기지, 비누생산기지를 훌륭히 꾸려 여기에서 생산된 후방물자들을 정상공급하고있으며 용해공식당, 압연공식당을 잘 꾸리고 자제로 생산한 부식물로 식탁을 풍성하게 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평양의 창광원 못지않고, 중앙홀에 들어서니 철보신의 절경을 다 보는것 같다고 높이 평가해주시는 성강원은 얼마나 황홀하고 40여개의 호실들에 텔레비전과 목욕기, 선풍기, 침대와 옷장을 비롯한 생활필수품들을 일식으로 갖추었으며 더운물이 나오고 전기난방화되어 찾아오는 사람마다 호평같다고 부러움을 금치 못하는 로동자합숙은 또 얼마나 회한 할가.

말그대로 성강은 지난 10년간 로동자들의 물질문화생활향상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켰다.

하기에 기업소에 찾아오신 어버이장군님께 크나큰 기쁨과 만족를 드릴수 있었다.

다만 성강의 후방사업은 이것으로 끝나지는 않건가.

성강의 봉화와 더불어, 주체철란생과 더불어 성강에서 창조된 모든 기적과 위훈은 후방사업은 사회주의호전이 당조직의 몫이라는 우리 당의 인민중시사상의 지대한 생활력에 대한 일대 과시로 된다. 성강의 후방사업경험은 열사복무의 마음, 높은 실력으로 안받침된 원신성, 끝장을 보는 완강성을 발휘할 때 후방사업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올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깨우쳐주고 있다.

성강의 후방사업을 론하면서 우리는 전당의 일군들에게 말하고있다.

후방사업이야말로 당책임일군들의 자격을 결정하는 시금석이라는것을 명심하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실천으로 만드는 인민의 참된 총복, 진정한 어머니가 되자.

본사기자 김영철
본사기자 채인철



강철 생산을 힘있게 추동하는 성강의 후방사업의 자랑스러운 현실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석탄을 광광 생산하여 나라의 전력문제해결에서 돌파구를 열자

중산돌격전에 계속 박차를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석탄전선의 모든 일꾼들과 탄부들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이진기에 비할바없이 많은 석탄을 화력발전소들에 보내주었다. 그리하여 화력발전소들에서 운영호기대수가 늘어나고 전력생산성과가 날마다 확대되고있다.

석탄공업부문의 일꾼들과 탄부들은 이룩된 성과에 토대하여 중산돌격에 계속 박차를 가해야 한다. 100년째 처음보는 기상조건으로 수력발전소들에서의 전력생산성과를 기대할수 없는 조건에서 겨울철에는 화력발전소발전기들의 호기대에 더 큰 부하를 걸어야 한다.

조정된 현실은 석탄공업부문의 일꾼들이 석탄 생산을 계단식으로 확대해나갈수 있게 경제작전을 주도적으로 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석탄생산의 직접적담당자는 다름아닌 탄부대중이고 오늘의 화력보장전투의 승패는 전적으로 석탄공업부문 일꾼들에게 달려있다. 석탄공업부문의 모든 일꾼들은 오늘의 사회주의초전선에 자기들이 모는 열매를 책임감을 다스리고 자기들이 내세운 중산돌격에 만수무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꾼들은 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심,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일판을 틀어 크게 벌리며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밀고나가 당의 구상과 의도를 반드시 실현하여야 합니다.」

석탄공업부문의 일꾼들은 현행생산능을 높이기 위한 긴장한 전투를 적극적으로 조직지휘하는 한편 석탄생산전방을 열기 위한 사업에 융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겨울철에도 화력발전소들에 더 많은 석탄을

좋은 처방과 비약적인 생산성과

덕천지구관광연합기업소 일꾼들의 사업에서

추동하기 위한 좋은 처방을 찾고 있고 현실에 내려간것이다.

연합기업소의 실패를 볼 때 탄광들과 갱만들, 체탄중대와 굴진소대의 구체적실정은 서로 다르다.

한미로 석탄생산의 기본전투단위가 100개이러면 그 모든 단위에서 생산적양성이 일어나게 할수 있는 100가지의 좋은 처방을 가지고 현실에 들어가야 높이 내세운 중산돌격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는것이다.

무엇보다도 연합기업소에서는 석탄생산의 기본전투단위들의 현실조건과 일꾼들의 수준과 준비정도에 맞게 일꾼들의 현실을 일관되게 내밀고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해당 단위들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일꾼들을 잘 선발하여 내려보내주는 것은 중산돌격수행의 선결조건이라고 보았다.

탄사가 걸려 탄밭을 마련하지 못하고있던 단위에는 탄사일꾼이 내려가 문제를 풀고 기술력량이 부족한 단위에는 능력이 있는 기술일꾼을 내려가 능력이 있는 기술일꾼의 봉화가 타오르게 하는 방법으로 일꾼들을 분담하였다.

좋은 처방과 비약적인 생산성과

이와 함께 일꾼들이 많은 단위에서 올해전투기간에 쌓은 경험에 토대하여 보다 큰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문제점을 하나씩 찾아내고 현장으로 내려가 중산돌격의 열거를 열도록 하였다.

중요한것은 이 사업에서도 책임일꾼들이 앞세워 메고 달려야 한다는것이다.

연합기업소의 책임일꾼들은 조건이 좋고 생산성이 높은 단위들이 아니라 지난 시기 이래저러한 원인으로 생산경쟁에서 뒤떨어지고있는 단위들을 맡아 추켜세우기 위한 좋은 처방을 가지고 현실에 들어가 좋은 결실을 맺고있다.

연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일꾼이 사창청년탄광을 맡고 내려간지 얼마 안되어 어느 한경에서 책임이 일어났다.

탄위들에서 성과가 이룩되게 되면 그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조직하고 사회주의경쟁총화에서 단위의 초급일꾼들과 함께 그 단위를 담당할 일꾼들의 사업도 같이 평가하고있다.

연합기업소의 모든 기본전투 단위들에서 활화산마냥 세차게 타오르는 생산적양양의 불길,

본사기자 강명천

연간계획을 앞당겨 끝낸 비결

북창지구관광연합기업소 남덕탄광 10개의 일꾼들과 탄부들은 경에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년초부터 중산돌격을 힘있게 벌려 8월까지 연간 석탄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자랑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채취공업에 힘을 넣어 석탄생산능을 높여야 화력발전소들도 날부하로 돌릴수 있습니다.」

성과에 만족을 모르는 갱의 일꾼들과 탄부들은 요즘 하루 평균 많은 석탄을 중산하며

화력탄보장에서 앞선 단위로

사창청년탄광에서

사창청년탄광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 진기에는 연합기업소전 생산경쟁에서 뒤처리를 차지하던 탄광이 화력탄보장에서 앞선 순위에 당당히 섰다. 하루평균 생산실적은 2~3년전에 비해 2배이상으로 증가하였다.

9월 16일 하루동안만도 중산돌격에 비해 수백이나 더 많은 석탄을 화력발전소에 보내주었다.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미, 기적창조의 근본열쇠는 천만근민의 정진력을 발휘시키는 데 있습니다.」

갱들에서 생산이 하루가 다르

탄광의 정보화실현에 기여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것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되고있다. 기술학습이 실속있게 진행되는 속에 누구나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암질의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합리적인 굴진방법, 발파방법을 틀어대며 굴진속도를 높은 수준에 보장하고있다.

올해에 굴진속도를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1.2배로 높이고있는 사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석탄생산능을 높이는 비결은 체탄장관리를 잘하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제9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 참가자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18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제9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 참가자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세계자유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어 만민의 심장속에 태양의 모습으로 영생 하고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의의 마음 안고 절세위인들의 팀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남자축구 조별리그전승자전단계에 진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남자축구 조별리그전 6조에 속한 우리나라 팀과 파키스탄팀사이의 경기가 18일에 진행되었다. 첫 경기에서 중국팀이 3:0으로 가세를 물리쳐 우리 선수들은 이날 경기에서도 팀의 위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어 관람자들이

제9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 개막

제9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가 개막되었다. 개막식이 18일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와 제9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숙 대외문화협력위원회 위원장, 리의구 국가과학원 부위원장, 남순녀 인민대학습당 부총장, 관계부문 일꾼들, 교원, 연구자들이 개막식에

제4차 생일 축하 모임 진행

김일성사회의청년동맹 제4차 초급일꾼대회 참가자들의 생일 축하 모임이 18일 4.25혁명에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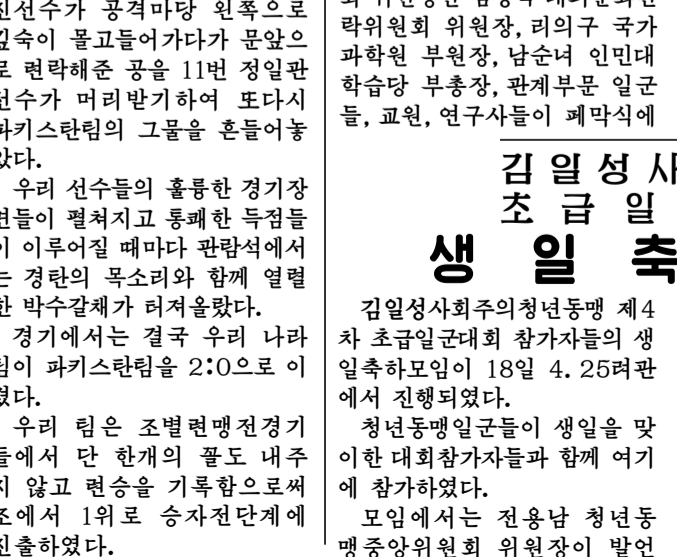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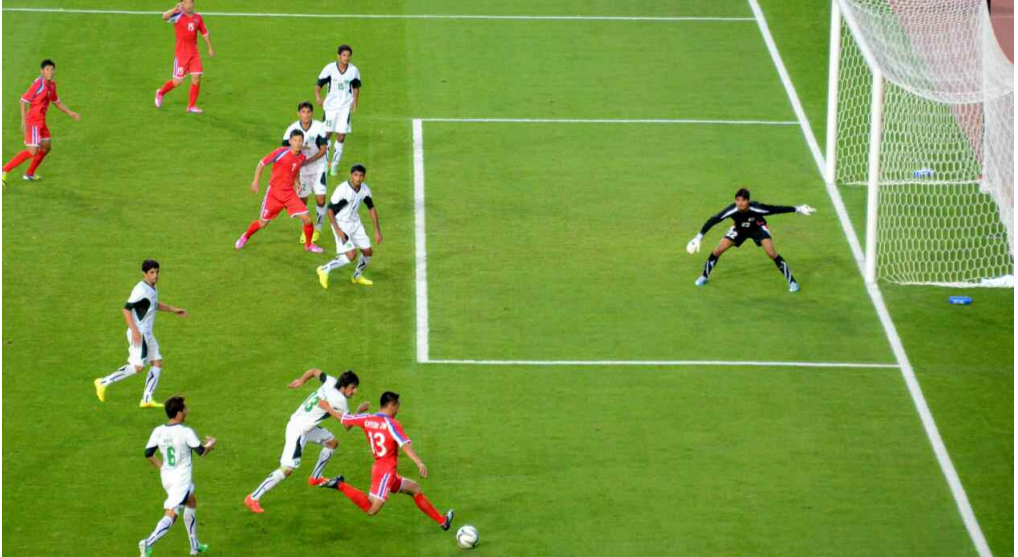
청년동맹일꾼들이 생일을 맞이한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여기에서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발언

제4차 생일 축하 모임 진행

경에하는 원수님의 이 사랑에는 청년동맹초급일꾼들이 모든 청년들을 참다름없이 김일성-김정일주의의자로 여겨준다는 믿음직한 정치일꾼, 열렬히 청년지휘관이 될것을 바라는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담겨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동맹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것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김일성사회의청년동맹 제4차 초급일꾼대회를 소집하도록 해주시고 대회기간에 생일을 맞은 참가자들을 위해 생일축하모임까지 마련해주신데 대하여 언급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제9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 개막

제9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가 개막되었다. 개막식이 18일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와 제9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숙 대외문화협력위원회 위원장, 리의구 국가과학원 부위원장, 남순녀 인민대학습당 부총장, 관계부문 일꾼들, 교원, 연구자들이 개막식에

제4차 생일 축하 모임 진행

김일성사회의청년동맹 제4차 초급일꾼대회 참가자들의 생일 축하 모임이 18일 4.25혁명에서 진행되었다.

청년동맹일꾼들이 생일을 맞이한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여기에서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발언

제9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 개막

제9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가 개막되었다. 개막식이 18일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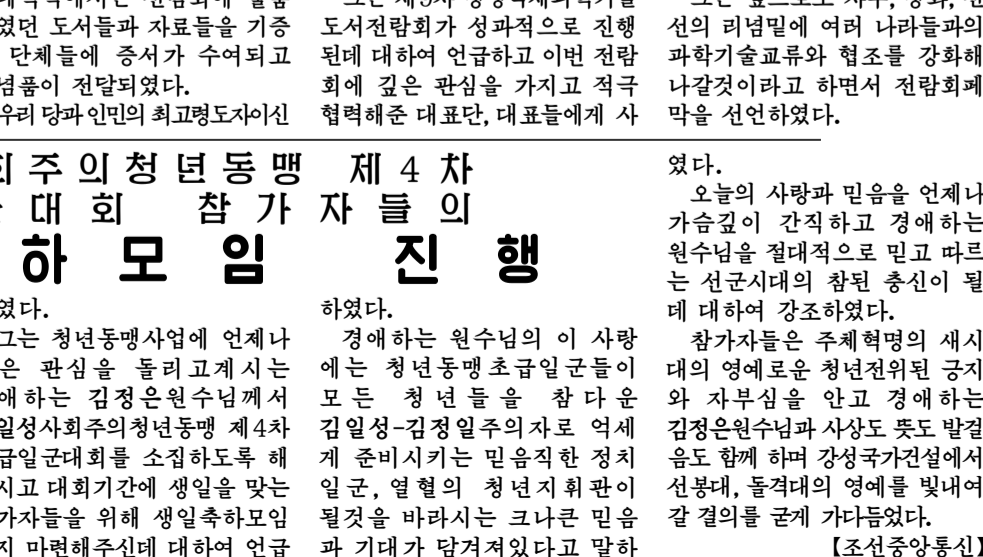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와 제9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숙 대외문화협력위원회 위원장, 리의구 국가과학원 부위원장, 남순녀 인민대학습당 부총장, 관계부문 일꾼들, 교원, 연구자들이 개막식에

제4차 생일 축하 모임 진행

김일성사회의청년동맹 제4차 초급일꾼대회 참가자들의 생일 축하 모임이 18일 4.25혁명에서 진행되었다.

청년동맹일꾼들이 생일을 맞이한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여기에서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발언



민족 전통이 활짝 꽃피는 진정한 조국

사회주의 내 나라 조국 땅에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세상에 자랑하는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이국의 들가에 피어난 꽃도 내 나라 꽃보다 피지 못했다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 넓어도 내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

노래도 아름답게 불러보았소 멀리서도 정답게 불러보았소 ...

이국의 들가에 피어난 꽃보다 내 조국 땅에 피어난 꽃이 더 푸르고 타향에서 마시는 한모금의 물도 내 고향의 샘처럼 달지 못하다는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을 그대로 담은 노래이다. 바로 여기에 민족문화유산과 민족적 전통이 활짝 꽃피는 내 조국에 대한 우리 인민의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 뜨거운 사랑이 한껏 어려워진다.

외세의 강압과 지배로 말미암아 민족의 넋이 시들어가는 남조선에서 민족의 슬기와 역사가 찬연히 빛나는 우리 공화국을 동경하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 고 있다. 이남에서는 사랑용, 뽕을 채취하며 단단한 민족의 혈통이 흐르고 민족문화와 전통이 존중되어 사려가지만 이북은 다르다. 민족의 위대한 태양을 높이 모신 이북은 민족의 현실이 용 용히 눈부시는 민족성의 대화원이 다. 이북에는 분명한 민족본연의

모습, 우수한 전통과 문화가 있고 고유의 멋과 향기가 있다.》

《이북에는 우리 민족의 원시 조인 문명의 봉,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왕의 봉이 개진되고 선 조들의 유적유물이 많은 금강산, 묘향산, 칠보산, 구월산, 정방산 등 명승지들이 민족의 유 원지로 훌륭히 꾸려져 있다. 북에서 진흙을 세운 것만 보아도 거기에는 민족특유의 양식, 민족의 얼이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 다. 여기가 바로 민족의 정기와 얼이 살아있고 약동하는 내 나 라가 분명하다.》

《한지맥으로 잇닿은 북의 현실은 위인이 있는 곳에 민족의 참모습이 있고 그 위대함이 있다.는 철리하게 대명제로 다시금 새겨져 있다.》 ... 이처럼 남북겨레들은 민족의 얼이 살아있고 민족정신을 빛을 뿌리는 우리 공화국을 긍지높이 찬양하고 있다.

남조선의 한 학사학자는 《민족의 참모습을 보라》라는 제목의 글에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이남에서는 민족의 넋과 미 풍양속이 여지없이 짓밟히고 송 두리째 사라지고 있는 반면에 이 북에서는 민족적인 모순이 철저히 고수되고 찬란히 개화발전 하고 있다.》

《남이 사는 내 나라》, 《이것이 이남의 사회적 대명사이다. 내 것이면서 사실상 내 것이 아닌 남의 땅, 선조들이 창조

한 유산들이 외세의 탐욕과 끊임없는 전쟁연속으로 무참히 약탈, 파괴되고 있는 곳이 다른 내 이남이다.》

자기의 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남과는 달리 이북에서는 자기의 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것을 민족적정서와 요구에 맞게 꽃피우고 품어내고 있다. 이북에서 는 조상전래의 유적, 유물 등 유산들이 끊임없이 조사 발굴되고 훌륭히 복원되어 민족의 향취를 풍기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족정신이 개화판 발하고 민족 전통이 참담게 살아 숨쉬고 있다.》

서울의 한 언론인도 어느 한 모임에서 《북에서는 땀비논이나 방송은 물론 각종 출판물들과 가리의 간판들 그 이에서 나 외어를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한타라 말하여 민족의 얼이 살아 숨쉬고 있는 북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가장 소중한 민족적 재산으로서 절세 위인들의 투철한 민족문화 어보존정신의 빛나는 결실이다.》 라고 격정을 터쳤다.

민족의 정기와 얼이 살아있고 약동하는 내 나라! 그렇다. 진정한 우리 공화국은 우리 민족의 우수한 민족성과 민족 전통이 맥맥히 살아 숨쉬고 있는 민족성의 화원이다.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가는 곳 마다에서 민족의 기상이 맥맥히 고 민족고유의 감정과 정서가 울려 퍼진다.

태양이 없이 민발하는 화원을 바랄 수 없듯이 절세의 위인들의 따사로운 손길을 떠나 남로 꽃 피는 우리의 민족성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

얼마전 서울의 한 대학 강의실에서는 민족의 운명 문제를 주제로 한 대학생들의 시국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민족의 넋과 미풍양속이 여지없이 짓밟히고 《정권》은 있어도 자주권이 없는 남조선의 현실과 판이하게 다른 우리 공화국에 대한 동경의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자주권에 관한 문제에서 추호의 양보도 모르며 민족적인 모순이 철저히 고수되고 찬란히 개화발전하고 있는 공화국의 자랑찬 현실에 대해 부러움을 금치 못했다.》 학생들의 열기엔 토론을 들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한 한 교수의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론했다. 《김일성 주석님께서와 김정일 동지님께서 주재성과 민족정신을 굳건히 지켜 오고 계셨다면 내 조국은 통째로 외세의 후진경으로 전락했지 오셨을 것이다.》

자기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교수는 이렇게 계속 하였다. 《과반민중의 세 과속에서도 혁명적 건설에서 주재성과 민족 자의 고수철수 있었으면 열렬한 애국자 김정일 동지님께서 민족을 중시하는 정치를 하시었기

때문이다.》

격정에 넘치는 교수의 이야기 는 모든 시국토론회 참가자들의 가슴속에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찬탄이 넘쳐나고 열기가 차넘치게 하였다. 남조선의 자유기고가 정주연 은 자기의 글에서 《조국은 사람들 의 운명을 맡아 지켜주고 빛내 주는 위대한 품이다. 하지만 우리 의 진정한 조국은 과연 어디인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썼다. 《나는 그 대답을 이북에 펼쳐진 현실에서 찾는다. 이북은 민족의 넋이 살아 숨쉬고 민족적 전통이 빛을 뿌리는 민족의 성지이다. 이북은 민족 의 운명을 영원히 맡아주고 빛내여 줄 위대한 품이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또 한번의 절세의 위인이신 김정일 동지께 대한 열렬한 헌법 맹세와 충성 맹세를 하고 있다. 민족의 운명을 영원히 맡아주고 빛내여 줄 위대한 품이다.》

인민에 대한 사랑, 민족에 대한 사랑을 전폭으로 지니신 정세아는 김정일 동지께서 내 조국에서는 민족의 유 구한 역사와 전통을 세세대대 더욱 빛을 뿌릴것을 우리 조국 과 민족을 영원히 김일성 동지, 김정일 동지께서 존엄할것이다. 본사기자

수령 결사옹위의 위대한 귀감

태양의 영원한 해발이 되어서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 모든 것을 다 바친 신 위대한 김일성 어머니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남김없이

는 오늘도 가슴 뜨겁게 돌이켜 보고 있다. 정치학교수 김수학은 소년시절에 나라를 세우는 투쟁의 길에 나선 김일성 어머니께서는 혁명의 불바람을 헤쳐서 대 민족의 열정과 애국정신 김일성 어머니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시는 특출한 공적을 세우셨다고 강조하였다.

지식인 박민규는 김일성 어머니께서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 하기 위한 길에서 쌓은 소년 불멸의 업적에 대해 이렇게 격찬하였다. 김일성 어머니께서는 항 일적의 나날 사명부를 결사옹위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 언젠가 계 설이 되었고 민족의 신변에 위함이 닦쳐올 때에 한몸이 그대로 성애가 되고 방패가 되어 호위하셨다.

나서의 불보다 뜨겁고 수정보 다 많은 그 충실성은 생애의 전 기간 어느 하루, 어느 한순간도 변함 없이 있었으리라. 자주회 회원 정인옥은 한 모임에서 김일성 어머니께서는 일제

남북 인민들의 경모심

기 김일성 주석님의 전사가 되어서 손에 총을 잡고 항일대전에 참가하시었을 뿐 아니라 해방후에는 부장조국건설을 명도하시

는 주석님을 정력적으로 보좌해 드리시었다고 격찬하였다. 서울시 판각구에 사는 한 지식인은 김일성 어머니는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복락을 위해 헌신 하시기를 뿐 아니라 이남의 통일에 애국투사들도 느끼게 보살피 주신 헌정이 자애로운분이었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퇴직교수 리성진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 어머니의 공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신 것은 주체위업, 태양위업의 대를 굳건히 이어놓으신 것이다. 내사께서는 설한봉이 휩쓰는 백두광야에서 태양위업의 총성을 울리시고 포연스민 군복각락에 미래의 장군을 안아키우시었다.

남녘인민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이렇듯 뜨거운 정열의 정이 분출하고 있는 속에 통일운동단 체를 위대한 어머니의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글, 특출한 교재 그리고 《백두산대장군의 천위령》, 《도솔부리는 총》을 비롯한 혁명전사들을 흠뻑이우 에게 하여 각계각층의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백두산대장군께서 울리신 삼일포의 총성이 한나산에도 울 러 온다고 격조높이 노래한 민중적 자유와 행복을 위해 《삼일포에 울린 총성》과 같은 문학작품들이 수없이 창작 보급되고 서울의 거리에

《민족이 남은 항일의 너장군 김일성 어머니》 등의 글이 띄워진 인쇄물들이 출현하여 시민들의 이목을 끌었다.

그런가 하면 부산의 송죽사에서는 회상자료들과 일화 등으로 위대한 어머니의 혁명업적을 감명깊게 보여주는 《민족의 영원한 어머니》라는 제목의 책이 발행되었다.

남녘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위대한 어머니를 영원히 높이 모시고 어머니의 넋을 헌신로 꽃피워갈 불라는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고 있다.

《김일성 어머니는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빛나는 태양이 되었고 영생하신다.》, 《내사의 업적은 우리 민족사에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것은 부산과 울산의 시민들만이 아닌 남녘인민 모두의 심정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한 재야인사는 김일성 어머니의 업적은 우리 민족사와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길에서 영원히 빛 날 것이라고 확신을 표명하였다.

외국 여행길에 가서 항일의 너장영웅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를 수록한 특출한 글은 그대 심정에 대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반면에 환한 웃음을 담은 너사의 영상을 우리 머리 속에 가슴뜨거워움을 금할 수 없었다. 너사의 나라의 해방과 독립, 민족적 자유와 행복을 위해 《삼일포에 울린 총성》과 같은 문학작품들이 수없이 창작 보급되고 서울의 거리에

【조선중앙통신】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

남조선신문 《로동과 세계》에 의하면 남조선교원들이 13일 서울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세월》호 참사가 빚어낸 때로부터 151일째가 된다고 밝혔다. 민중이 원하는 것은 오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수장시킨 참사가 왜 일어났고 왜 구조하지 않았으며 왜 진실을 밝히지 않았는가를 명백히 해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히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여 투쟁을 벌인 교원들이 탄압당하고 있다고 개탄하였다. 그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고 책임자가 처벌받을 때까지 투쟁을 벌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집회에서는 결의문이 낭독되었다.

교원들 투쟁 전개 결의문은 집권자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정치권은 특별법제정을 정치적용무대용으로 삼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은 학생이 신뢰할 수 있는 사회, 학생이 살아갈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면서 리우보다 아성이 존중받고 안전이 중시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이를 위해 특별법제정을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리는 남조선인민들

남조선신문이 글 게재 14일 남조선의 《경향신문》에 의하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피의정부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밝혀졌다. 《세월》호 침몰사고대응 실례에 대한 감사원의 결과 보고서 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에 의하면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당시 전 라남도 진도 맹목항에서 진 도군청의 한 관료는 구조인 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기자회견을 가졌고 190명이 추가 구조되었다고 발표해 버렸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는 확인조차 하지 않고 상부에 그대로 보고하였으며 1시간 간격으로 6차례의 기자회견 을 가지고 여론조성에 열을 올렸다. 해양경찰이 아침 8시 55 분에 사고를 접수하고도 보고를 늦추고 피해, 구조와 관련하여 6차례에 걸쳐 의 국된 사실을 전파한 사실도 드러났다. 결국 행정관료들 의 대의적 조작된 《세월》호 진원구조라는 오보가 언론에 흘러가면서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살릴 수 있던 생명까지 수장되는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호전광들은 파멸을 면치 못한다

평화를 위협하는 미사일방위체계 전개 소동

얼마전 피뢰 6차 월남군사대표와 청와대 안보실장 김관 진영도가 편이 미국을 생각하였 다. 그 주위는 목적의 하나가 고 고도미사일방위체계 《THAAD》의 남조선배치와 관련한 논의이다. 이것은 그루에 결고 남조선에 《THAAD》를 전개하려는 미국과 《안보에 도움이 된다.》느니 뉘니 하며 내외의 강행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찬성코 끌어들이려는 피뢰들의 공모결탁이 매우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 해주고 있다. 미국과 피뢰전선력은 저들의 이런 부사스러운 움직임에 대하여 《북의 도발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느니 뉘니 하고 떠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평화파괴자들의 주자스러운 변명 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과 남조선 피뢰계 당이 아무리 《THAAD》배치를 정당화하려고 해도 내외의 심각한 우려와 반대규탄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없다. 그것은 조선반도의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고 북남관계를 불신과 대결의 극단으로 바싹 몰아가면서 주변나라들의 안전 보장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런 정세파괴의 위험한 요인 이 《THAAD》의 남조선배치를 고안해낸 것은 미국이다. 올해 초부터 미군부의 상층인 물들은 우리 공화국의 그 무슨 《위협》에 대비하여 미사일방 어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궤 변을 늘어놓으면서 남조선이 저 들과 대응능력을 개선하여야 하 라고 떠들었다. 지난 3월에는 미국방성이 미분토와 해외주둔 미군, 《동맹국》 보호를 위한 미사일 요격체계 강화의 구실임이 74억 5 0 0 0만 달러라는 막대한 예산자금을 국회에 요구 하였다. 미군부는 이 자금을 《북의 미사일위협》에 대비한 요격미사일과 란도미사일추적 용고성능능력의 추가개발에 리용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 주위는 배치지가 조선반도라고 말하였다. 지난 5월에도 미합 중합본부 부의장이라는 자는 미사일방위체계의 최우선목표는 《북의 위협》이라고 하면서 남조선과 일본과의 공조에 대해 운운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미국신문

평화를 위협하는 미사일방위체계 전개 소동

《월 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북의 미사일위협》과 관련하여 남조선에 고고도미사일방위 체계인 《THAAD》를 배치하려 하는데 대해 폭로하면서 미국이 벌써 남조선에서 부지조사를 실시했다고 공개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조선반도 주변 여러 나라들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THAAD》배치가 지역의 안정과 전략균형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한 우려를 금치 못하면서 반대입장을 표시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THAAD》배치는 《북의 미사일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 고 우기면서 그것을 계속 추진 하였다. 미국은 이미 태평양상에 있는 저들의 주요군사기지 판도에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고고도미 사일방위체계를 배치하고 운영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HAAD》를 찬성코 남조선에 끌어들이려는 속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명백한 것이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 과 압력의 도수를 높이고 북남 사이의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는

평화를 위협하는 미사일방위체계 전개 소동

동시에 조선반도와 그 주변을 둘러싼 넓은 지역에 미사일방위 체계를 전개배치하여 조선반도 주변 나라들에 대한 포위망을 형성하고 패권지위를 확립하려 는 것이다. 조선반도의 주변 나라들이 남조선에 《THAAD》가 배치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예민 한 반응을 보이면서 그 중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연치 않다. 결국 미국은 조선반도의 긴 장완화와 북남관계의 운명을 간 중에도 없이 대조선적대시정책 과 침략적인 대외전략실현에 앞 발광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이것이 가슴이 간질간질한 조선반도정 세를 더욱 침에 강하게 핵전쟁장 발의 위험을 극도로 증대시킨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피뢰 전선력은 상선의 기도에 적 극 맞장구를 치고 있다. 처음 《THAAD》의 남조선배치에 나들자 그에 대하여 《교과하고 있지 않다.》느니 뉘니 하며 모 르스를 하던 피뢰계당은 그것이 언론들을 통해 기사화될 때마다 《THAAD》가 배치되자 《북의 란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미사일방위체계의 구축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행복의 요람에 넘쳐흐르는 은혜로운 사랑

나라의 왕들인 아이들의 밝은 웃음이 꽃피는 행복의 요람에 또다시 우리 당의 후대 사랑, 미래 사랑의 화폭이 펼쳐졌다. 정양육아원, 애육원 원아들이 온정어린 회귀한 철갑 상어와 칠색송이를 받아안 았다. 친어머니의 정결은 사랑으로 언제나 원아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는 당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부모없는 실을 맺어 모르고 무력부력 자라 는 아이들의 얼굴마다에 기쁨이 차넘쳤다. 세상에 없는 특별연회까지 마련해주시며 국제아동절을 맞 는 원아들을 축복해주시고 철 갑 상어와 칠색송이를 받아안 았다. 친어머니의 정결은 사랑으로 언제나 원아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는 당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부모없는 실을 맺어 모르고 무력부력 자라 는 아이들의 얼굴마다에 기쁨이 차넘쳤다. 세상에 없는 특별연회까지 마련해주시며 국제아동절을 맞 는 원아들을 축복해주시고 철 갑 상어와 칠색송이를 받아안 았다. 친어머니의 정결은 사랑으로 언제나 원아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는 당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부모없는 실을 맺어 모르고 무력부력 자라 는 아이들의 얼굴마다에 기쁨이 차넘쳤다.

들을 보내주시고도 거들 배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 원수님의 한광당은 온정은 만사람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품안 갈은 경사가 겹쳐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칠 줄 모르는 육아원, 애육원은 명철처럼 흥성하였다. 펼 펼 뛰는 철갑상어와 칠색 송이를 받아안고 좋아라 밭 을 돌듯 구르며 뛰는 아이들의 환성, 보육원, 교양원들의 경예에 젖은 목소리가 원아들 의 요람마다에 울려 퍼졌다. 부모없는 아이들을 가장 훌륭한 생활조건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으며 무력부력 한 크도록 하라 하는 것이 당중앙의 의도라 하고 하시면서 이 세상 천만부모의 정과 열을 합쳐도 다하지 못할 위대한

사랑으로 원아들을 보살피 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덕에 일꾼들과 보육원, 교양원들은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다 활짝 피어날 행복 을, 선군동맹의 사랑을 확신 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종사상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원아들에 대한 교육강당과 영양관리를 더 잘하 라 강요조건의 역설 기증감들로 든든히 키워갈 의욕에 넘쳐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일 원수님을 어머니로 모시고 《세상에 부럽지 않다》의 노래 높이 부르 는 온 나라 아이들의 행복부친 모습과 더불어 사회주의대강은 더욱더 밝아질 것이다.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에즈트 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 아브를 파라트 알 씨씨 에즈트 아브를 파라트 알 씨씨 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전 하 였다. 그는 또한 외교인민회의 상임 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 시 하 고 경 애 하 는 김정일 동지께서 자신의 따뜻한 인사를 전하여 드릴 것을 대 사에게 부탁하였다. 또한 김영남 동지에게 인사를 전달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대통령은 사회적부리와 번영을 위한 조선인민의 노력에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고 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나라 팀 결승경기에 진출

2 0 1 4년 아시아 축구 구련맹 16살 미만 선수권 대 회에서 우리 나라 남자축구나 타이 에서 진행되었고는 2014년 아시아 축구 구련맹 16살 미만 선수권 대회 결승경기에 진출하였다. 17일 우리 팀과 오스트랄리아 팀과의 준결승경기가 있었다. 앞서 진행된 경기들에서 평시에 련마해온 기술과 집단의 단결력을 남김없이 보여준 우리 선수들은 필승의 신심안고 준결 승의 마당에 나섰다. 경기 첫시작부터 선수들은 2, 3인결합에 의한 짜임 편파

우리 나라 팀 결승경기에 진출

를 련속 흔들어 놓아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특히 빠른 정향판단과 민첩한 동작으로 오스트랄리아 선수들 이 차명기한 공을 잘 막아낸 문 지기의 활약으로 하여 우리 나 라 팀은 11학자로 4:1로 결승 하였다. 결국 우리 팀은 경기상적 5:2로 오스트랄리아를 이기고 결승경 기에 진출하게 되었다. 우리 팀은 20일 결승경기를 하게 된다.

독자의 편지

사랑과 정이 넘치는 내 조국이 제일 주의 딸은 군사인무수행 중 부 러왔고 합니다. 청년의 어머니도 강한 아들들을 떠밀어 주셨습니까. 사실 가정에서 녀성들의 역할 이 얼마나 크니까, 그 모든 것을 각오하고 결정을 내린 김준철 청년의 진정앞에 머리가 숙여져 우리 딸도, 영애군인자식을 둔 저희들도 끝내는 단아한 녀성들의 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우리 딸 김향이와 우리 사위 김준철은 만사람의 축복속에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저의 딸이 자부님의 사랑나 차분주의가 복귀된 나라에서 전 상자가 되었다면 오늘날의 눈물겨운 현실을 꿈꿔본 생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오직 인간사랑의 화신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원수님께서는 어머니로 모시고는 나라가 한 가정, 한식물이 된 우리 사회, 고상한 인생관, 불리도덕관을 자기 결심은 일시적인 흥분이나 동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조국보위초소에서 피를 내던 영애군인자녀의 팔과 다리 가 되어 영원한 김동무로 혁명 의 뜻을 함께 피워가는 것이 우리 시대 청년의 응당한 도리이며 이 길에 경애하는 원수님 가

위원회, 성, 중앙기관일군 정구경기 진행

위원회, 성, 중앙기관일군 정 구경기가 15일부터 18일까지 프라다에서 진행되었다. 경기에서 선수들은 당의 대중체육방침을 받들고 평시에 련마하여온 정구기술을 잘 보여 주었다. 이번 경기에서는 화합군영 성, 유원지총국, 경흥지도국, 선중앙방송위원회가 조에서 각 각 1등을 쟁취하였다. 체신성, 국가계획위원회, 은하지도국, 외국문화출판사 각 각 2등을, 국토문화보호성, 대외문화협력위원회, 대외건설지도 국, 민주생활자각사 각 각 3등을 차지하였다. 18일에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단체, 선수들에 대한 시상 이 있었다. 위원회, 성, 중앙기관일군 정 구경기는 혁명의 지휘부원들 정 구경에는 나라에 체육열풍을 고조 시키며 향상한 폐기와 정열에 넘쳐 조선체육도장의 불꽃을 더 세치게 지퍼올릴 일꾼들의 드높 은 열의를 잘 보여주었다.

충현의 방문단들이 떠나갔다

충현의 방문단들이 떠나갔다 부장, 리영생장관, 서달성을 각 각 단장으로 하는 충현 조 단회도 학생 조국방문단들이 18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 갔다. 【조선중앙통신】

